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연구

김미영* · 김진수**

〈차례〉

- | | |
|--------------------------|------------------------|
| 1. 서론 | 4.2 위계적 대립으로의 확장 |
| 2. '있다/없다'의 기본의미와 정도성 | 4.3 평가적 대립으로의 확장 |
| 3.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주관화 분석 | 5.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비대칭성 |
| 4.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 6. 결론 |
| 4.1 양적 대립으로의 확장 | |

1. 서론

상보반의어는 어휘 간 의미관계의 양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런 상보적 의미관계도 우리의 감각, 경험, 직관과 더불어 맥락에 따라 그 양립성이 약화되어 새로운 의미 영역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 ‘있다/없다’는 ‘책상에 책이 있다/없다’나, ‘경복궁은 서울에 있다/없다’처럼 상보반의어의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돈이 좀 있다/없다’, ‘돈 있는/없는 사람들’처럼 정도반의어의 특징도 갖는다. 본 연구는 ‘있다/없다’의 다양한 의미 양상을 상보반의어가 아닌 정도반의어의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있다’의 의미 확장에 관해 이수련(2003)은 ‘존재’라는 원형 의미에서 ‘장

* 동북사범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학과 강사(제1저자)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교신저자)

소, 소유, 시간'의 의미로 확장된다고 밝히고, 이상희(2017)는 존재동사 '있다1'과 소유동사 '있다2'로 나누어 '있다1'의 중심의미를 '존재'로 보고 이 중심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존재하다, 포함되다/속하다, 일어나다/이루어지다/발생하다, 위치하다, 머무르다'의 확장됨을 보였다. 반면 '있다2'는 중심의미를 '소유'로 보고 의미 확장의 폭이 좁아 하나의 의미범주로만 나타난다고 했다. 송혜란(2011)은 '있다/없다'는 '부유함/가난함', '위계 따위의 구별', '개체속성의 소유/비소유'의 의미로 쓰일 때에만 정도반의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외의 모든 의미 범위에서 상보반의어 관계를 형성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자훈(2004)에서는 '있다'와 '없다'의 중심 의미와 파생적 의미들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찾아냄으로써 이들이 다의관계에 있음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그 의미 확장 양상을 밝혔다. 이상의 논문들을 보면 '있다/없다'는 모두 상보반의어의 입장에서 의미 확장을 논의하고 송혜란(2011)에서만 정도반의어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의미 확장의 원인과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도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과 그 의미 확장에 작용하는 기제를 살피고 확장된 의미들 사이의 비대칭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있다/없다'의 기본의미와 정도성

'있다'의 의미는 다음 (1)과 같이 다양하다. (예문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함)

- (1) ㄱ.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 ㄴ. 나는 그와 만난 적이 있다.
- ㄷ. 오늘 회식이 있으니 모두 참석하세요.
- ㄹ. 방 안에 사람이 있다.
- ㅁ. 그는 서울에 있다
- ㅂ. 그는 철도청에 있다

- ㅅ. 그 일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ㅇ. 합격자 명단에는 내 이름도 있었다.
- ㅈ. 나에게 1000원이 있다.
- ㅊ. 나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 ㅋ.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다고 무척 기뻐하였다.
- ㅌ. 그는 지금 대기업의 과장으로 있다.

예문(1-7)에서 ‘있다’의 의미는 ‘존재’이고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속 ‘있다’의 첫 번째 의미이다. 김차균(1982), 김영미(1995), 이수련(2003), 김상대(1991), 정자훈(2004), 김미영·김진수(2018) 등 많은 학자들이 ‘있다’의 기본 의미를 ‘존재’로 보고 이로부터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 (1)과 같은 의미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본고도 이를 받아들여 ‘있다’의 기본의미를 ‘존재’로 하여 그 확장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존재’는 객관적 존재로 ‘객관성’의 의미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있다/없다’의 이 기본의미에 준하여 상보반의어의 전형적인 실례로 ‘있다/없다’를 들었다.¹⁾ 하지만 단어 의미는 맥락 의존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 ‘있다/없다’의 경우 기본의미보다는 확장의미가 문장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쓰이기²⁾ 때문에 확장의미를 배제한 채 기본의미만으로 그 반의어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편면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반의어는 의미 관계 또한 동적이어서 그 유형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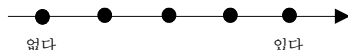
1) 이승명(1978), 이석주(1989), 김주보(1988), 유재복(1992) 등이 있다.

2) 한마루를 이용하여 ‘있다/없다’의 의미별 빈도수를 계량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1072/559’ 문장에서 기본의미인 ‘존재/비존재’의 빈도수는 ‘62/75’로 전체 의미별 빈도에서 ‘있다’는 5위, ‘없다’는 3위에 불과했다. 즉 ‘있다/없다’는 확장의미가 기본의미보다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3) 임지룡(1989:24), 김슬옹(1998:12)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반의어는 그 유형을 ‘바르고 정밀하게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반의어는 그 분류에서 각 어휘 관계의 고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슬옹(1998:13)에서는 어휘 관계는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관계로 파악해 어휘 관계가 우리 삶속에서 일으키는 다양한 의미작용을 놓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고정적인 어휘 유형 설정은 대부분 개념적

정도반의어는 한 단어의 긍정이 다른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는 것이 아닌 두 반의어 사이에 등급이 있는 반의어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있다/없다’의 비이원성



정도반의어는 정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상보반의어와 대립된다. 이러한 정도성은 화자와의 상대적 관계를 형성시킨다. 여기서 정도반의어는 ‘주관성’의 의미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 ‘있다/없다’도 정도성이 부여됨으로써 화자와 관련 있음을 나타내는 주관성의 속성을 얻게 된다. 기본의미인 ‘객관적 존재’에서 확장의미의 ‘주관적 존재’로의 전이도 아울러 실현된다. 따라서 정도반의어의 ‘있다/없다’는 사실 기본의미를 바탕으로 한 상보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결과이고 여기에 관여하는 기제는 화자의 주관적 해석이다. 즉, 기본의미인 객관적 실재에 화자의 직관이 결합된 결과물로 그 정도성에 주관성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있다/없다’의 정도성은 정도 부사와의 결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2) ㄱ.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쥬 있는 팔자 늘어진 백수이다.
 나. 술을 적게 또는 적당히 마신 사람들이 평생 금주해 온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기존에 꽤 있었다.
 다. 옷에 가려진 부분은 피부가 하얗고 주름이 살짝 있죠.
- (3) ㄱ.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랬노라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개념적 의미는 의미작용의 구체성을 소개시킨 주류 담론에 의한 보편적 일반화라고 지적했다. 즉 어떤 어휘가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는 맥락에 따르는 바, 한 어휘를 무조건적으로 무슨 반의어라고 확정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 ㄴ. 동구에 벌 키우는 농가가 100호 이상이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ㄷ. 저한테는 말이 굉장히 없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있다/없다’는 ‘좀, 꽤, 살짝, 너무, 거의, 굉장히’ 등 정도부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며 더불어 정도성의 의미를 형성하여 정도반의어로서의 특징을 갖게 된다⁴⁾. 본고는 ‘있다/없다’를 기본의미가 아닌 확장의미에서 정도반의어를 이룬 면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양상을 인지의미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주관화 분석

주관화는 “화자가 어떤 사태를 심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며, 또한 어떤 사태를 비교의 관점에서 과정적으로 또는 누적적으로 파악할 때 관여하는 기제”(이수련, 2010:34)이다. 즉 “주관화는 발화 행위자가 언어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언어의 형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관한 것”(김동환, 2013:304)이며 “주관화는 다의성을 가진 언어 요소의 의미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인지 언어 기제 중 하나이고 말하는 사람의 언어 해석 참여 여부에 따라”(함계임 2017:198) 일어난다. 이 주관화에 의해 화자는 자신의 관점을 맥락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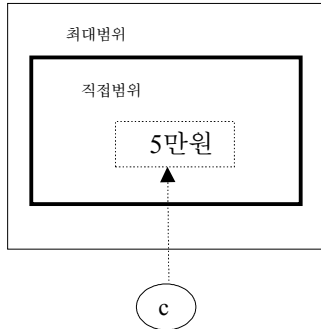
4) 정도반의어의 특징에 대해서 윤평현(2008:142-145)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정도반의어는 한 쪽 단어의 단언과 다른 쪽 단어의 부정 사이에 일방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둘째, 정도반의어로 구성하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다. 정도반의어는 동시에 부정해도 무방하다.
셋째, 정도반의어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비교문에서도 쓸 수 있다.
넷째, 정보반의어는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다섯째, 정도반의어로 구성하는 두 단어 가운데 한 단어가 더 기본적이고 일반적으로 쓰인다.
본고는 ‘있다/없다’의 의미는 기본의미가 아닌 확장의미로서의 ‘있다/없다’로 분석한 것이다. 확장의미로 볼 때 ‘있다/없다’는 ‘돈이 있다/없다’라는 실례만으로도 위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바, 정도반의어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에 투사시켜 어휘의 의미 변화가 유발되며, 따라서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 의미로의 전이가 실현된다. 화자의 참여는 화자가 공간과 시간적으로 맥락과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즉 맥락과 멀어질수록 객관적 시각에서의 발화가 이루어지고 맥락과 가까워질수록 주관적 시각에서의 발화가 이루어진다. 객관화와 주관화는 화자의 원근화법의 부호화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맥락과의 원근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청자와 관련이 있다. 청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표현은 주관화 실현이 어렵다. 주어 중심적 명제 발언이 화자 중심적 담화 발언으로 바뀌는 것은 그 속에 청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관화는 인간의 동일한 장면이나 상황을 화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여러 표현방식 중 하나인데 이것은 청자를 향한 화자의 관점 전달이기도 하다. 화자는 명제와 가까워져 객관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에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개입시켜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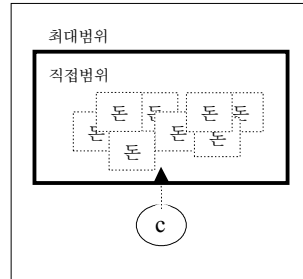
- (4) ㄱ. 여기에 돈이 5만원이 있다. (구체적 물리적 존재로서의 돈의 존재, 기본 의미로서의 ‘있다’)
 ㄴ. 그는 좀 돈이 있다. (추상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돈, 재산의 소유, 확장 의미로서의 ‘있다’)
 ㄷ. 그는 평생 놀고먹을 만큼 돈이 있어. (추상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돈, 재산의 소유, 확장 의미로서의 ‘있다’)

위의 예문 (4ㄱ)의 물리적 존재인 돈은 (4ㄴ-ㄷ)의 추상적 사회적 존재로의 돈과 구별된다. 예문 (4ㄱ)은 ‘있다’ 구성이 ‘돈이 5만원이 있다’로 돈의 액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어 화자의 주관적 관점의 개입이 어렵다. 하지만 (4ㄴ-ㄷ)은 ‘있다’ 구성이 ‘돈이 있다’로 액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 화자 개입이 용이하다. 특히 (4ㄷ)의 ‘그는 평생 놀고먹을 만큼 돈이 있어’에서 문장의 초점이 ‘돈이 있어’에서 ‘평생 놀고먹을 만큼’으로 옮겨가 화자의 주관화 인지 과정이 잘 드러난다. 이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예문 (4ㄱ)



〈그림3〉 예문 (4ㄴ-ㄷ)



인지언어학에서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작용을 시각적 은유에 따라서 ‘초점 조정’이라고 하고, 이를 Langacker(1987:116-37, 김동환, 2013:316)에서는 ‘선택’, ‘원근법’, ‘추상화’ 세 가지로 하위분류하였다. ‘선택’은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특정 국면에 관한 것이고, ‘원근법’은 상황을 관찰하는 위치와 관계된다. 따라서 위치에 따른 상대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추상’은 상황의 상세성 수준이고, ‘범위’는 ‘선택’과 관련되는데 초점을 뒷받침해주는 필요한 문맥을 말하는 것으로 배경에 해당된다. 이 ‘범위’는 ‘최대 범위’와 ‘직접 범위’로 나눌 수 있다. 최대 범위는 초점과 그와 관련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변부를 말하고, 직접 범위는 초점화에 가장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적 주변부를 말한다.

〈그림2〉와 〈그림3〉의 최대 구별은 개념화자의 위치이다. Langacker(1985:121, 2004:15)는 ‘주관성’을 시점(해석)의 문제라고 여겼다. 이는 즉 시각의 주체(지각하는 개인)와 대상(지각되는 객체)사이의 비대칭 관계로서, 해석하는 사태를 자신과는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객관화하는 방식과, 의식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그 사태에 관련된 모습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였다⁵⁾. 〈그림2〉는 개념화자가 해석하는 사태를 자신과는 완전

5) 예를 들면 165cm의 아들(15세)과 170cm의 아버지를 비교하여 “아들이 아버지보다 작네!” 하면 객관적 사실에만 근거한 발화로 개념화자와 사태가 완전히 분리된 무대 밖의 시점에서

히 분리되는 발화를 진행하여 최대범위의 밖에 있으며 맥락과 사공간적으로 멀기 때문에 명제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하게 되어 ‘5만원이 있다’ 진술은 구체성, 객관성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있다’의 범주는 모든 사람의 인지 공간 속 범주이며 본 명제에 대한 언어 발화는 누구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림3>의 ‘있다’는 정도성, 주관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Lyons(1982:102)는 “주관성은 자연 언어가 그 구조나 보통의 작용방식으로 발화 행위자 자신 및 그의 태도나 신념에 대한 표현을 공급하는 방법”이라 하였고, 이후(1995:337)에는 “언어 용법에서의 자아 표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념화자는 사태에 관련된 모습으로 최대범위 안에 있으며 본 사태에 자아 표현을 결부하여 발화하고 있다. 여기서 ‘있다’의 범주는 화자의 인지 공간 속의 범주이며 서로 다른 화자의 인지 과정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게 된다. 하여 ‘있다’의 의미범주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화자가 최대범위 안에서 사태를 서술하여 사태에 있어서의 ‘화자 개입’을 의미하는 주관화가 일어났다. 즉 사태에 대한 발화는 화자의 관점과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수련(2010:39)은 “화자가 서 있는 위치가 사태가 일어나는 무대 밖이면 객관적이지만, 무대의 범위 안으로 들어갈수록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화자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음 예문으로 보기로 한다.

- (5) ㄱ. 그는 돈이 있다.
 ㄴ. 그는 돈이 있지는 않다.
- (6) ㄱ. 그는 돈이 없다.
 ㄴ. 그는 돈이 없지는 않다.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보다 크네!”라고 발화하면 개념화자가 아들의 미래를 그려 사태의 관련된 모습으로 발화한 것으로 최대범위 속에 포함되게 된다.

(5ㄱ)에서 ‘있다’의 기본의미인 ‘존재’ 의미를 배제하고 확장의미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의미적 집합을 형성한다.

- (5)′ 재물이 충분하게 있다/있지는 않다.
 재물이 어느 정도 있다/있지는 않다.
 재물이 조금 있다/있지는 않다.
 재물이 아주 조금 있다/있지는 않다.

- (6)′ 재물이 많이 없다/없지는 않다.
 재물이 거의 없다/없지는 않다.

위의 의미적 집합에서 ‘있다’와 ‘있지는 않다’는 상보적 관계를 이루지만 ‘없다’와는 대칭적인 집합을 이루지 않아 상보적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상보적이지 않는 것은 영역 내에 중간항⁶⁾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있다’는 중간항이 다양하게 형성되지만 ‘없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그 정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없다’는 의미영역 범위가 ‘있다’에 비해서는 한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4〉 ‘있다/없다’의 정도적 집합

충분하게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조금 있다	많이 없다
아주 조금 있다	거의 없다

6) 중간항이란 두 단어가 상보적으로 양립되지 않음으로써 그 두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값어치를 나타내는 항목을 말한다. 즉, ‘높다’와 ‘낮다’의 사이에 ‘알맞다, 적당하다’와 같은 중단 단어들이 존재하는 외에 또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항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두 단어 사이에 정도의 차이에 따른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4>에서 이런 정도성을 측정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그 기준은 심리적이고 주관적이며 동시에 측정대상에 따라 비교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개입이 용이하게 되고 그 기준에 따라 ‘있다/없다’의 영역의 크기가 달라진다. 기준을 낮게 잡으면 ‘있다’의 영역이 커져 사태에 대하여 긍정하는 담화를 많이 진행하고, 높게 잡으면 ‘없다’의 영역이 커져 부정적인 담화가 많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화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림4>에서 ‘있다’의 영역은 ‘없다’에 비해서 큰 데⁷⁾ 이것이 바로 화자의 느낌과 직관을 실재와 접맥시켜 주관화가 실현된 결과이다.

4.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임지룡(1996:250-251)에 제시된 일반적 확장 원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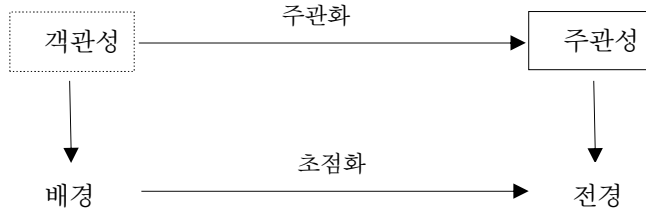
- 사람 → 짐승 → 생물 → 무생물
- 구체성 → 추상성
- 공간 → 시간 → 추상
- 물리적 → 사회적 → 심리적
- 일반성 → 비유성 → 관용성
- 내용성 → 기능성

하지만 이는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확장 원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새로운 확장 원리를 제시하면 ‘객관성→주관성’의 확장이다. 앞에서 설명한 ‘주관화’는 주관성이 강화되는 과정이다. 또한 ‘전경-배경’의 정렬이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에 관여된다. 이 확장의 틀을 그림으로 보

7) 김미영·김진수(2018:65)에서 ‘있다’의 의미 확장 외연의 폭이 ‘없다’의 외연의 폭보다 크다고 기술하였다. 정도반의어에서도 화자의 주관화 개입과 더불어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면 다음과 같다.

〈그림5〉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확장의 틀



위의 확장의 틀에 따른 정도반의어 ‘있다/없다’가 보이는 의미 확장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양적 대립·위계적 대립·평가적 대립으로의 확장이 제일 두드러진다. 그것은 정도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의 주관화에서 양(量)·위계(位階)·평가(评价)⁸⁾는 인간의 관념, 신념, 지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로써 화자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가장 잘 대변하여 화자의 사회적 존재를 부각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그 의미 확장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1 양적 대립으로의 확장

‘있다/없다’는 ‘존재’의 영역에서 주관화의 인지 과정을 거쳐 ‘양적 존재’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는데 의미 해석에서 화자의 입장이 주관적으로 반영되지만 그 표현 형태와 언어적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 (7) ㄱ. 배운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ㄴ. 최근에는 손님이 좀 있는 ‘비가 오지 않는 토요일’에만 영업을 한다

8) 양인 ‘많고 적음’, 위계인 ‘높고 낮음’, 평가인 ‘좋고 나쁨’은 우리의 경험적 인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바, 어휘 사용에서 높은 빈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관심사와 이어진다. 특히 긍정의 단어 ‘많다’, ‘좋다’, ‘높다’는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 전체 65535개 어휘 중 43위, 51위, 225위를 자랑하고 있다.

고 했다.

ㄷ. 희생자들은 주로 나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8) ㄱ. 이력도 없고 뺨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ㄴ.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ㄷ. 찬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위의 예문의 ‘있다/없다’는 모두 정도성을 가졌고, 그 정도성은 모두 화자의 개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도출한 주관적 관점으로 상대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양적 정도성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어서 ‘많다/적다’와 호환된다. 이는 ‘있다/없다’는 문장이나 발화 구조가 변한 것이 없음에도 객관적인 존재로부터 주관적인 양적 존재로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있다/없다’의 의미에 원근법적 본질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전경-배경 원리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있다/없다’의 양적 대립에서의 전경과 배경

전경		배경	
구성	의미 특성	구성	의미 특성
(재산)+많-	상대성 주관성	(재산)+존재	절대성 객관성
손님+많-		손님+존재	
나이+많-		나이+존재	
돈+적-		돈+존재	
아는 것+적-		아는 것+존재	
찬+적-		찬+존재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때 인식 대상들을 동등한 관심으로 혹은 주의력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관심을 갖는 부분과 정도가 다 다르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인식 대상의 부분 중 어떤 것은 지각의 초점 부분으로 윤곽 부여되어 전경이 되고 어떤 것은 부가적인 부분의 배경이 된다⁹⁾.

9) 김진수(2017:42)에서는 “윤곽부여 된 부분은 바로 본질적으로 프레임 속의 어떤 요소를 전경화 하는 것이고 초점화가 되는 것이다.”고 했다.

문장 의미를 파악할 때에도 배경인 전체 의미에서 상황에 맞는 전경을 인지체계가 선택한다. 따라서 위의 예문들의 ‘있다/없다’에서는 ‘존재’¹⁰⁾의 의미가 배경이고 ‘많다/적다’의 의미가 전경이다. 즉 예문(7-8)의 ‘있다/없다’의 대상인 ‘돈, 손님, 나이, 뺨, 돈, 아는 것, 찬’에 대해서는 그 존재보다는 ‘많고/적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 그것에 인지체계가 반응한다. 하여 ‘대상+있다/없다’로 배경 의미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지만 화자의 주관적 태도인 ‘많고/적음’이 전경으로 두드러진다.

언어는 사물이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이 그것을 바라보는 주관적 심리와 함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반영한다. 사람마다 동일한 상황을 서로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 그 의미는 사적이고 상대적이다. 배경인 객관적 존재는 개인적 편견을 초월하여 보편성을 갖는다. 전경인 주관적 정도성은 객관성을 초월하여 화자의 태도와 신념이 반영되므로 배경에 비해 보편성이 적다.¹¹⁾

4.2 위계적 대립으로의 확장

다의어란 동일한 단어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지만 그 의미 전이는 동일한 의미가 다른 상황에 직면하여 서로 다른 내용물로 개념화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동일한 의미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우리의 인지 체계는 상황에 부합하는 의미를 새로 부각시켜 개념화하여 받아들인다. ‘있다/없다’는 양적 정도성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으로도 그 정도성이 활성화 되었다. 이는 ‘있다/없다’가 위계적으로도 부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객관적 존재보다는 위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두드러져 그것이 전경으로 부각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10)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는 모두 정도성을 갖고 있는바, 모두 ‘존재’를 바탕으로 그 정도성이 반영된다.

11) 대부분 배경은 문장 주어가 중심이고 명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경은 문장 주어보다는 화자주어가 두드러지고 명제 기능보다는 담화기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9) ㄱ. 요즘 지위 있는 사람끼리 결혼할 때 건강보험내역 등을 서로 떼어 교환한다.

ㄴ. 남편은 재차 학벌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절대 신뢰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ㄷ. 2군 선수들 중에서도 수준 있는 선수들이 몇 명 없었다.

(10) ㄱ. 고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2년,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이 더 크다"며 헌법적 지위가 없는 제주도의 한계를 되짚었다.

ㄴ. 반면에 학벌 없는 사람은 배우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혼 자체가 힘들다.

ㄷ. 그런 자들을 보면 자존감 없는 덜 떨어진 사람들 같아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의 예문에서 ‘있다/없다’는 ‘높다/낮다’와의 호환성이 성립한다. 즉 사물에 대한 객관적 존재가 아닌 위계에 대한 주관적 정도성을 표현하는데 그 정도성은 화자의 주관적 심리의 노출이다. 즉, 위계의 정도성은 화자의 경험적 인지를 바탕으로 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인식이다. 또한 화자는 중요하고 관심 가지는 부분과 보다 덜 중요하고 덜 관심 가지는 부분을 분리하여 인지하는데 그것이 바로 ‘있다/없다’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이다. 예문(9-10)의 ‘있다/없다’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를 도표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표2〉 ‘있다/없다’의 위계적 대립에서의 전경과 배경

전경		배경	
구성	의미 특성	구성	의미 특성
지위+높-	상대성, 주관성	지위+존재	절대성 객관성
학벌+높-		학벌+존재	
수준+높-		수준+존재	
지위+낮-		지위+존재	
학벌+낮-		학벌+존재	
자존감+낮-		자존감+존재	

예문 (9-10)에서 ‘지위, 학벌, 수준, 자존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존재’보다는 그 위계로 화자는 그 위계에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도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초점화하여 발화한다. 즉, 위 문장에서 화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된 ‘높다/낮다’가 화자가 말하려는 본질이고, 객관성을 띤 ‘존재’는 배경에 불과하다. 화자의 주관적 관점은 단어의 고정된 의미를 기초로 하는 것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객관적 실재의 범주는 개인의 마음의 범주와의 사이에 일치성을 이루지 않게 되어 중간 단어나 중간항이 존재하는 정도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¹²⁾

인간의 인지 체계는 관심사에 대하여 고정불변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신념을 결부하여 표현하려 한다. 이런 전경 의미는 개인에 따라 달리 표현되므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지만 그 전경의 바탕적 의미로 작용하는 배경 의미는 상대적으로 고정불변한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4.3 평가적 대립으로의 확장

양적 대립, 위계적 대립 외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는 평가적 대립으로도 사용된다. 어떤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양, 위계, 평가 등은 모두 언중의 관심 대상들이다. 화자는 이러한 언중들의 관심 기호에 맞추어 일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낸다. 하지만 단어 선택에 있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거나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12) 이런 인지 작용은 ‘심적주사’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수련(2010:35)에서는 "우리가 외부의 세계를 인지하는 경우, 사태의 대상과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인지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 비교의 인지에 의해서 사물의 범주화나 경험의 구조화, 또는 지식의 구조화가 가능하다. 이 비교 행위는 어떤 인지 사태를 기준으로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인지 사태를 상대적으로 파악해서 행위로 규정한다. 이 비교 행위에서 두 가지의 인지 사태를 관련시키는 과정이 주사(scanning)이다. 이를 심적 주사(mental scanning)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사태를 인지하는 두 가지 인지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존재의 의미를 바탕으로 그것을 새롭게 평가한다. 이는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대상의 존재지만 언중들의 관심사는 평가적 잣대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는 우리의 경험과 지각에 기초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뜻을 부여받게 된다.

(11) ㄱ. 머리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

ㄴ. 술도 껌 겸 산책에 나선 두 사람은 감미로운 분위기가 있는 라이브 카페에 도착하였다.

ㄷ. 우승도 윤이 있어야 한다.

(12) ㄱ. 머리가 없으면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함이라도 있더라.

ㄴ. 분위기가 없는 데서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

ㄷ. 주변에서 나오는 작품마다 왜 흥행하지 못하냐고 윤이 없는 배우라고 한다.

위의 예문 중의 ‘있다/없다’는 ‘좋다/나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객관적 존재에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삽입하여 표현하였다. 화자의 ‘평가’에 있어서 좋은 것은 긍정적인 ‘있다’로 개념화되고 나쁜 것은 부정적인 ‘없다’로 개념화되었다. 담화에서 언어는 객관적 명제에 대한 구조주의적인 의미보다는 화자의 존재가 승인되고 화자가 지각하고 인지하는 언어로서의 구현과 표현이다. 이는 ‘있다/없다’의 의미적 범주가 객관적 체계에서 주관적 체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고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 여기에 능동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어휘의 개념적 구조를 변화시켰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표3〉 ‘있다/없다’의 평가적 대립에서의 전경과 배경

전경		배경	
구성	의미 특성	구성	의미 특성
머리+좋-	상대성 주관성	머리+존재	절대성 객관성
분위기+좋-		분위기+존재	

운+좋-		운+존재	
머리+나쁜-		머리+존재	
분위기+나쁜-		분위기+존재	
운+나쁜-		운+존재	

예문(11-12)에서 ‘있다/없다’는 ‘머리, 분위기, 운’등과 결합하여 대상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대상은 그 자체가 가시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쉽게 개입된다. 주관화의 본질은 화자의 심적주사이다. 화자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구조화 방식이 전경으로 두드러지는데 이는 단지 화자의 특정한 관점에서 지각하여 이루어진 발화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객관적 명제에 대한 단언이 아니고 사람마다 동일한 장면이나 상황을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 대상의 존재는 배경적 역할에 불과하지만 화자의 주관적 인식은 배경의 객관적 명제의 의미에 기초하여 새로운 의미로 파생되며 전체 의미에서 그것이 윤곽부여되어 초점화·전경화된다. ‘있다/없다’의 의미 영역에는 ‘존재’라는 배경 의미 외에 의사소통 참여량이 높은, 배경 의미보다 더 부각되어 표현되는 전경 의미가 존재한다. 이는 화자가 객관적 명제에 자신의 경험을 접목시켜 개념화한 결과물이다.

궁극적으로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는 존재¹³⁾의 의미를 바탕으로 형성된,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한 자신의 세계 주관화·초점화 반영으로 ‘많다/적다’, ‘높다/낮다’, ‘좋다/나쁘다’의 의미로 나타나는데 ‘있다/없다’는 이런 의미들의 기호화, 개념화 표현에 불과하다. 일단 단어는 변하지 않았고 의미만 달라진 것으로 해석의 차원이 다름을 설명하고 객관적 해석에서 주관적 해석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로 획득하는데 여기에 참여되는 기제는 행위 발화자의 주관화의 인지과정이다.

13) ‘있다/없다’는 ‘존재/비존재’가 기본 의미지만 정도반의어에서 ‘비존재’는 정도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없다’는 ‘있다’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정도반의어를 통해 증명한 셈이다.

〈그림6〉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주관화 양상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와 상보반의어 ‘있다/없다’의 근본적인 구별은 그 정도성에 있다. 이 정도성은 화자의 판단에 의거하고 비교의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즉 정도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는 일차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많은 것/적은 것, 높은 것/낮은 것, 좋은 것/나쁜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 ‘많은 것, 높은 것,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있다’로 개념화되고, ‘적은 것, 낮은 것, 나쁜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없다’로 개념화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제는 해석의 주관화로 이는 화자의 심적주사가 담화에 참여하는 인지과정이다. 즉 ‘있다/없다’는 사태에 화자의 관점이 투사됨으로써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 의미의 확장을 이룩한 것이다.

5.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비대칭성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대립쌍도 다른 반의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과 비율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대립되는 항 중 한쪽이 널리 사용되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다. 즉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지 않고 있다.¹⁴⁾

14)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상보반의어의 ‘있다/없다’로 연구하였기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과정보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예를 들면 ‘있다/없다’ 반의어 쌍의 중화 현상과 조어능력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현상을 상보반의어가 아니라 정도반의어로 해석하면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의문문에서 그 의미사용이 대칭적이지 않고 중화현상이 발생한다.

- (13) ㄱ. 재산이 있는가?
 ㄴ. 재산이 없는가?

- (14) ㄱ. 지위가 있는가?
 ㄴ. 지위가 없는가?

- (15) ㄱ. 맛이 있는가?
 ㄴ. 맛이 없는가?

위 예문에서 보면, 양적·위계작·평가적 정도성을 나타내는 의문문에서 ‘있다’ 구문은 사태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¹⁵⁾ 상태로 ‘없다’ 구문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 ‘없다’ 구문은 ‘재산이 없다’, ‘지위가 없다’, ‘맛이 없다’가 전제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만 사용된다. 즉 정도반의어 ‘있다/없다’ 의문문에서 긍정적인 쪽에서 중화가 실현되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물음의 속성을 새로운 정보의 획득과 암시된 정보의 확인에 있다고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화된 상태의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임지룡, 1987:164)". 이런 중화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정도반의어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있다’의 의미 영역은 상대적으로 ‘없다’에 비하여 크다고 기술한 바 있다(그림4).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 (16) ㄱ. 돈이 어느 정도 있는가?
 ㄴ. 돈이 100만원이나 있어요. (주관적 긍정)
 ㄷ. 돈이 100만원밖에 없어요. (주관적 부정)
 ㄹ. 돈이 100만원 있어요. (객관적 해답)

15) 선입견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므로 ‘있다’의 무표성을 드러내고 있다.

(17) ㄱ. 돈이 어느 정도 없는가?

ㄴ. *돈이 100만원이나 있어요.

ㄷ. 돈이 100만원밖에 없어요. (주관적 부정)

ㄹ. 100만원만 있어요/밥먹을 돈만 있어요/버스비만 있어요.

(주관적 부정)

예문(16)의 긍정의문문에서는 주관적 긍정과 부정, 객관적 해답 모두 가능하지만 예문 (17)은 주관적 부정밖에 가능성이 없다. (17ㄴ)에서 보조사는 '-나'는 수량이 크거나 많음을 강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17ㄱ)의 수량이 적음을 전제하는 질문의 해답으로는 적합하지 않다.¹⁶⁾ (17ㄷ)는 100만원 말고는 없다는 뜻으로 수량의 적음을 주관적으로 나타냈고 (17ㄹ)는 비록 '있다'를 써서 해답하였지만 보조사 '-만'은 '한정'의 뜻을 나타내므로 역시 '적음'의 강조된 말로 부정적인 해답에 속한다. 앞에서도 논의하다시피 '있다'의 문은 선입견이 없는 상태이기에 긍정적, 부정적, 객관적 해답 모두 가능하지만 '없다'의 문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발화이기에 부정적인 응답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보조사 '-나'와 '-밖에'의 의미가 더해져 '있다'는 의미와 '없다'는 의미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 예문 (16)은 '많음/적음'의 강조가 모두 가능한데 비해 예문 (17)은 '적음'의 의미만 강조된다. 이는 '없다'의 정도의 영역이 '있다'에 비해 작음을 드러내고 따라서 이 둘은 비대칭적임을 말해준다.

또한 '있다'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두루 쓰이지만 '없다'는 부정적 영역에서만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있다'의 의미자질에는 [+긍정적 존재], [+부정적 존재], [+중간적 존재]가 있고, '없다'의 의미자질에는 [+부정적 존재]만 있는 것이다. 즉, '있다'는 곧 척도이고, 그 척도 안에 긍정적 의미의 '있다', 부정적 의미의 '없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16) 물론 화용론적으로 "돈이 100만원이나 있어요."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돈이 없음'을 부정하는 의미 즉 '돈이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없다'의 정도성을 나타내지는 못하므로 '없다'의 의미 영역 고찰에서는 배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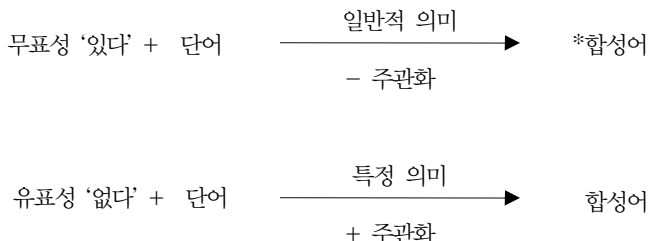
것이다. 이는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로의 확장은 ‘있다’로부터 이루어졌고 일부 사태에서 그것이 주관적 긍정과 주관적 부정의 대립으로 개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중화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어 능력에서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는 비대칭을 이룬다.

- (18) ㄱ. *낮있다/낮없다, *중있다/중없다, *대중있다/대중없다, *버릇있다/버릇없다, *아랑곳있다/아랑곳없다, *보잘것있다/보잘것없다, *느닷있다/느닷없다, *열있다/*열없다, *채신있다/채신없다, *꿈짜있다/꿈짜없다, *어처구니있다/어처구니없다, *슬데있다/슬데없다, *변함있다/변함없다, *어이있다/어이없다, *염치있다/염치없다, *힘있다/힘없다, *맥있다/맥없다, *유감있다/유감없다, *유례있다/유례없다, *의지가지있다/의지가지없다, *턱있다/턱없다, *그지있다/그지없다, *까딱있다/까딱없다, *끄떡있다/끄떡없다, *끓임있다/끓임없다, *난데있다/난데없다, *다름있다/다름없다, *다시있다/다시없다, *무람있다/무람없다, *문제있다/문제없다, *변함있다/변함없다, *볼품있다/볼품없다, *부질있다/부질없다, *세상있다/세상없다, *소용있다/소용없다, *싸가지있다/싸가지없다, *쓸모있다/쓸모없다, *어림있다/어림없다, *변함있다/변함없다, *하릴있다/하릴없다, *형편있다/형편없다, *씩수있다/씩수없다, *올데갈데있다/올데갈데없다, *난데있다/난데없다
- ㄴ. 값있다/값없다, 멋있다/멋없다, 재미있다/재미없다, 맛있다/맛없다, 관계있다/관계없다, 상관있다/상관없다,
- ㄷ. 지멸있다/*지멸없다, 가만있다/*가만없다

예문(18ㄱ)은 ‘없다’ 구성은 합성어로 가능하고 ‘있다’ 구성은 합성어를 이루지 못하는 예들이다. (18ㄴ)은 ‘있다/없다’ 모두와 합성어로 가능한 예들이고, (18ㄷ)은 ‘있다’ 구성은 합성어로 가능하지만 ‘없다’ 구성은 합성어를 이

루지 못하는 예들이다. 이들 예들을 보면 ‘없다’의 조어능력이 ‘있다’에 비해 강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들에서 합성어를 이룬 단어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정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있다’는 많은 경우에 무표적인데¹⁷⁾, 이는 ‘있다’는 특별히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유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유표적인 ‘없다’와 달리 조어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있다/없다’의 합성관계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설명에서 ‘있다’는 무표적이기 때문에 초점화 되지 않아 새로운 의미적 구조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와 반면에 유표성의 ‘없다’의 특정 의미는 보완적이고 부수적인 의미로 특정의미와 전체의미 사이에 비교의 인지과정이 발생하여 주관화가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전경의미와 배경의미가 구분되고 특정의미가 초점화되어 합성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구조가 형성되어 합성어가 발생하게 된다.¹⁸⁾ 왜냐하면 합성어라고 함은 주로 의미적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이다.

(18ㄴ)와 같은 ‘있다/없다’ 모두 합성어를 만드는 것은 ‘있다/없다’가 일부

17) 김미영·김진수(2018:65)에서 인지의 세계에서 ‘있다’가 ‘없다’보다 우선됨으로써 더 구체적인 이고 더 일반적인 의미를 지녀 ‘무표성’을 가졌다고 했다.

18) ‘돈이 있다/돈이 없다, 지위가 있다/지위가 없다’ 등이 합성어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있다/없다’의 ‘많다/적다’, ‘높다/낮다’의 의미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의미로서 비교의 심적 주사가 일어난다하더라도 누구나 유추 가능한 의미에 속하므로 새로운 의미가 필요되는 ‘합성어’ 형성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상황에서 모두 유표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18c)에서 ‘없다’와의 결합이 어려운 것은 이 상황에서는 ‘있다’가 유표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가만있다’는 ‘조용히 있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경우가 ‘조용히 있지 않는’ 경우이므로 ‘있다’ 구성이 유표성을 가진다. 또한 ‘지멸있다’의 사전적 의미는 ‘꾸준하고 성실하다. 또는 직심스럽고 참을성이 있다.’로 일반적으로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일에 속한다. 따라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표성을 지닌 ‘있다’가 사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조어능력 면에서 볼 때 ‘있다/없다’는 비대칭적이다.

6. 결론

본고는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에 작용하는 기제를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확장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그 대립쌍은 일반 반의어와 마찬가지로 본포와 의미 면에서 대칭적이지 않음을 고찰하였다.

주관화는 화자가 문장 맥락 속에 개입하여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데 참여하는 인지과정이다.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맥락 속에 투사하여 어휘의 의미가 확장됨으로써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인 의미로의 전이가 실현된다. 화자의 맥락 속 투사는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중간항의 존재로 말미암아 쉽게 이루어지고, 이런 중간항은 화자의 주관적 관점과 신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고정적이지 않다. 그로 인해 화자에 따라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이 뒤따를 수 있다.

화자의 주관적 해석의 작용 하에 정도반의어 ‘있다/없다’는 양작위계작평가적 대립으로의 확장이 실현되는데 이는 전경-배경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 객관적 존재는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배경의미로, 개인적 편견을 초월하여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양작위계작평가

적의 정도성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 신념의 반영으로, 전경으로 초점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반의어로서의 ‘있다/없다’는 일차적으로 화자의 심적 잣대에 근거하여 ‘많은 것/적은 것, 높은 것/낮은 것, 좋은 것/나쁜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적으로 ‘많은 것, 높은 것,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있다’로 개념화되고, ‘적은 것, 낮은 것, 나쁜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없다’로 개념화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제는 해석의 주관화로 이는 화자의 심적주사가 담화에 참여하는 인지과정이다.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대립쌍도 다른 반의어와 마찬가지로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지 않고 있다. 우선 의문문에서 긍정적 측면에서 중화현상이 발생하여 비대칭적인데 이는 ‘있다’의 의미 영역에 ‘없다’가 포괄되는 것이 근본적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있다’의 의미자질에는 [+긍정적 존재], [+부정적 존재], [+중간적 존재]가 있고, ‘없다’의 의미자질에는 [+부정적 존재]만 있는데 이는 ‘있다’는 곧 척도이고, 그 척도 안에 긍정적 의미의 ‘있다’, 부정적 의미의 ‘없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항의 ‘있다’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포괄적 의미의 ‘있다’로 중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무표성 차이로 주관화 여부가 발생하여 조어력 측면에서도 비대칭성을 이룬다.

본 연구는 ‘있다/없다’의 확장 양상과 비대칭적 의미양상을 많은 텍스트에서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 작업은 추후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양상과 비대칭적 의미의 사용 양상을 텍스트에서 찾아내어 본고의 작업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주제어: 상보반의어, 정도반의어, ‘있다/없다’, 주관화, 의미 확장, 비대칭성, 유표성, 중화현상, 전경, 배경

참고문헌

- 김동환(2013),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이론』, 박이정.
- 김미영·김진수(2018), 「한국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연구」, 『한국언어문학』, 105기, 40-66.
- 김상대(1991), 「'있다'의 의미에 대하여」, 『인문논총』2, 5-31.
- 김슬옹(1998), 「상보반의어 설정 맥락 비판- '남/여'가 상보반의어인가」, 『한국어 의미학』3, 67-94.
- 김영미(1995), 「『있다』의 의미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보(1988), 「국어 의미 대립어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김진수(2017), 「인지이론으로 본 방향대립어의 대립성 약화·중화 현상 연구」, 『국제어문』제73집, 33-59.
- 김차균(1985), 「『있다』의 의미 연구」, 『언어문학연구』, 501-528.
-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 국립국어원.
- 박재연(2007), 「문법 형식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 '으면서, -느라고, -고서, -자마자'의 의미기술을 위하여」, 『한국어 의미학』22, 73-94.
- 유재복(1992), 「반의어 '오다' '가다'의 의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142-145.
- 이상희(2017), 「'있다' 동사 구문의 통사와 의미-존재동사와 소유동사의 구분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사고(2014), 「한국어 반의어의 불균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46, 189-213.
- 이수련(2003), 「'있다'의 문법화에 대한 의미·화용적 연구-부산 방언을 중심으로」, 국어학, 42, 177-205.
- 이수련(2010), 「주관화와 의미 해석-개념 화자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7집, 29-54.
- 이석주(1989), 「반의어에 대한 고찰」, 『이용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한샘.
- 이승명(1978), 「국어 상대어의 구조적 양상」, 『어문학』 37집 163-173, 한국어문화회.
- 임지룡(1987), 「정도그림씨의 의미대립 특성」, 『언어』12(1), 150-168.
- 임지룡(1989), 「국어 대립어의 의미 상관체계」, 형설출판사, 24-28.

- 임지룡(1993), 「원형이론과 의미의 범주화」, 『국어학』 23, 41-68.
- 임지룡(1996),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정희자(2002), 「전경 함축과 배경 함축」, 『담화와 인지』9(1), 151-170.
- 조미희(2013), 「국어 보조동사 의미의 주관화—'어 놓다, -어 두다',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쌍을 중심으로—」, 『형태론』15권 1호, 35-54.
- 조미희(2016), 「국어의 주관화 과정과 문법화 범위에 대하여」, 『한민족어 문학』 73, 67-92.
- 한경숙(2018), 「중국어 '掉'의 의미 확장과 주관화 중한 대조연구」, 『중국인문과학』69, 81-101.
- 함계임(2017), 「주관화 이론을 적용한 연결어미 '-(으)'의 의미 조합 분석 과 의미 제시 순서」, 『언어와 문화』13호 2기, 195-215.
- Langacker, Ronald(1985), "Observation and Speculation On subjectivity", Iconicity in Syntax,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Langaker, Ronald(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onald(2004), "Deixis and Subjectivity", Grounding, Mouton De Gruyter.
- Lyons, John(1982), "Deixis And Subjectivity", Speech, Place and Action, John Wiley & Sons LTD.
- Lyons, John(1995), "The Subjectivity of utterance", Linguistic Semantics, Cambridge Univ. Press.

이 논문은 2019년 5월 20일 투고 완료되어
 2019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6월 21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金美英

소속: 东北师范大学 人文学院 韩语系
 전자우편: 2508588915@qq.com

■ 김진수

소속: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kimjs@cnu.ac.kr

A Study on the Meaning Extension of Gradable Opposites Words ‘Itta(있다)’ and ‘Optta(없다)’

Jin, Mei – ying · Kim, Jin – soo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aspects of the extended meaning of the gradable opposites ‘itta’ and ‘optta’. It demonstrates that unlike other general antonyms, the contrasting pair is not symmetrical in terms of distribution and meaning. Based on the cognitive linguistic theory, subjectivization refers to intervention in the context of a speaker’s utterances and is a cognitive process engaging in expressing one’s perspective within the context. With the application of subjectivization, gradable opposites ‘itta’ and ‘optta’ are realized by extending their quantitative, hierarchical, and evaluative opposing aspects.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foreground and background principle, which is well known in Gestalt psychology. Objectivity can be a background meaning of gradable opposites ‘itta’ and ‘optta’, and it is absolute and unbiased to anyone transcending individual prejudices. The degree in terms of quantitative, hierarchical, and evaluative aspects is reflected in the subjective attitude and belief of a speaker, and it shows that the contour is given as a meaning of foreground. The contrasting pair of gradable opposites, ‘itta’ and ‘optta’ does not have symmetrical distribution, as do other antonyms, because of neutralization, markedness, and differences in meaning areas.

Key words: complementary antonym, gradable opposition, itta/optta, subjectivization, meaning extension, asymmetry, markedness, neutralization, foreground, background